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예수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 6월 7일(수)~9일(금), 6월 11일(주일) ▶

그리스도의 품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막처럼 삭막하고, 인생은 섬처럼 고독하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신문이나 TV로 접하는 뉴스들은 기쁨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는 소식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타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뜨거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타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상은 이런 게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비록 이렇게 매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결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우리들은 이 비결을 원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푸른 세

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찾아가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누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소유하신 많은 분들의 모임인 우리 충현교회에서는 일일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 많은 분들과 동시에, 함께 그 귀한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세 번의 이 잔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그 귀한 비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귀중한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네번째의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정성으로 준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소리높여 간절하게 초청합니다.

삶의 의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웬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신 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신 분, 충현교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은 있으셨으나 구경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 누구든지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제 11장 28-30절 말씀)

1995년 6월

충현교회 담임목사 신 성 중

사진으로 보는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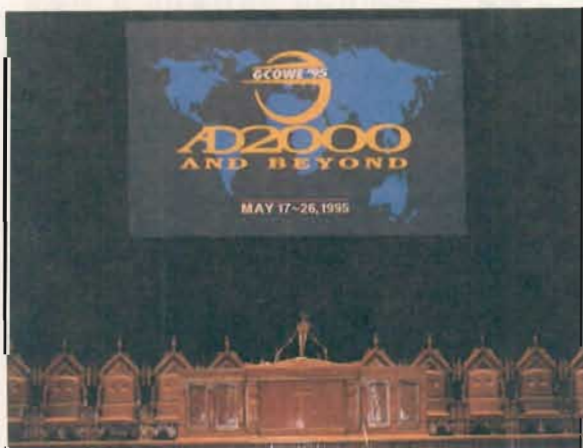
▲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 · 신령한 예배 · 천국일꾼 양성 · 민족복음화 · 세계선교 · 지역 사회 봉사라는 다섯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충현교회는 주일 낮 네 차례 예배(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와 저녁 찬양예배(오후 5시), 수요일에는 두번의 예배(오전 11시, 오후 7시), 새벽기도회(오전 4시 30분, 5시 30분), 금요일특별집회(오후 8시) 등으로 모입니다.



▲ 충현교회는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연령과 특수성에 따라 30여개의 부서로 세분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교회 내외의 여러면에서 봉사하며 활동하는 청년들의 모습.



▲ 충현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힘을 확인하고 서로 도우며 섬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되기 위한 여러 모임과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교구 찬양대회, 각 전도회별 친교모임 등. 사진은 충현올림픽의 한 장면



▲ 충현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고 전 세계 11개국에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 주일 영어예배와 주일 미부 예배시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동시통역을 실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복음화에도 힘쓰고 세계선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세계선교대회의 한 장면.



▲ 충현교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 교인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전도회를 조직하고 농어촌 전도, 직능별 전도, 군전도 등 모든 방면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에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북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수사랑 군전치를 열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충현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교회재정의 80%를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진은 충현교회당에서 모인 장애인복음화대회의 한 장면.



◆ 초대하면서 드리는 생명의 말씀 ◆

일이 잘되게 하려면

(갈 6:9-10)

신성종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될 때보다 잘 안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억지로, 심지어 불법으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망신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이 잘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안되는 이유

첫째로, 일이 잘 안되는 것은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된다고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왜 내가 실패를 하였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의 목표는 우리의 사고를 분명하게 해서 강하고 체계적인 목적의식을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을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행기를 탈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탈 것인지, 아니면 택시를 탈 것인지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일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예, 성공을요."

"아니 글썽 성공이라니 어떤 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목표가 분명치 않은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 지 목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결정이 됩니다.

둘째로, 일이 잘 안되는 것은 동기유발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명감과 동기유발이 분명히 되어있다면 자연히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일은 물론이고,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일도 동기유발이 되어야 열심히 생기고, 또 열심히 있어야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유발은 일에 대한 비전과 소명감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일이 잘 안되는 것은 노력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뉘뉘니 해도 믿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무사 알라미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대사막에 꽃을 피운 기적을 들어 냈습니다. 그는 미친 자라고 욕하고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6개월간 모래만 나오는 마른 사막을 파서 물을 내고 결국 이스라엘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일이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도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지금도 남아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명화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시피하여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일이 잘되게 하는 비결

첫째로, 일이 잘되게 하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사회의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의 영광을 가리우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명령이라고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일에 잘되게 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에 잘 안되면 제일 먼저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때면 먼저 낙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한 미국의 케니는 하반신이 없는 아이이지만 언제나 명랑하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 때 성화봉

송을 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준 그는 심지어 '천사'란 칭호까지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을 압니다. 그는 가난한 월급쟁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애쓴 결과 미술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각과 미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곳 미술학교 선생님과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로댕은 낙제했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여 미술학교 선생님을 이겨보자하고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마침내 36살 때 '청동시대'란 작품을 내게 되어 그것으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첫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그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두번째 이유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안될 때 괜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장이나 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청지기라는 것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일이 잘되게 하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먼저 할 일, 안할 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또 하나 피곤한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니까 피곤합니다. 일은 혼자해서는 안되고 또 하게 말아야 할 일까지 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그러나 피곤한 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까 놀란 것은 심계에 어떤 아예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도 좋고 등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게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게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찬송 부를 때 좀 소리를 내서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좀 무색하게 보이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함께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미소를 띄우고, 악수도 적극적으로 하면 한 주 일의 모든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다 해소됩니다.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로, 일이 잘되게 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농부를 보십시오. 보리를 가을에 뿌려놓고 눈이 오는 겨울을 기다립니다. 파란 것이 다 시들어버리는 겨울 철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농부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하고 단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병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국가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기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성공을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일이 잘되게 하려면 거두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폭풍이 불었지만 우리나라를 피해 갔습니다. 그야말로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풍년이 들어도 거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개미를 보면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저들의 거두는 지혜는 정말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농사를 지은 곡식을 함께 모으게 않으면 아무 소용에 없듯이 우리도 모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애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모아 주님의 일을 해야 성공합니다. 일부만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되는 비결 다섯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발견해서 에제루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게를 예수님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해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느 성도의 이야기

작 년 8월 어느날 어둑해질 무렵 누가 찾아왔다고 손자가 뛰어 들어왔다. 아프고 귀찮은 몸으로 '누가 왔나?' 하고 손자를 따라 나가보니 교회 선생님이라고 인사했다.

그날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가 외출한 날이다. 그 무렵 손자는 친구를 따라 충현교회에 몇번 나갔는데 선생님이 심방을 왔다고 하였다. 나는 교회 선생님이란 애기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면서 한숨쉬는 소리와 나의 푸념을 얘기했다. "이놈의 세상, 팩! 죽어 버리면 좋겠어요....." 나의 사정을 묵묵히 미소로써 다 듣고난 손자의 선생님은 예수님 사랑 잔치가 있는 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며 기도하고 돌아갔다.

나는 어린시절도 외롭게 자랐고 육십이 넘도록 사랑이란 느낌도 모르는 채 바쁘고 메마르게 허덕이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에 집 부근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몇번 가본 적이 있으나 성장해서는 이렇게 늘도록 전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설상가상으로 나까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으니 너무 어려워 눈물만 나왔다. '누굴 위해 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생각해보니 참으로 허무하고 기도 하고 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은 아프고 위로 한 마디 못받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졌다.

이때 손자를 만나러 오신 선생님이 "충현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잔치가 10월 26일에 있어요. 잔치날 손님이 많아야 하잖아요? 초청할 때 못이긴채 하고 마음 준비만 하세요. 모시러 올게요. 대답해주세요. 예?" 하고 대답을 채근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다 늙도록 누구 관심도 한 번 못받는 나인데 이렇게 초청하니 한 번 가보자고 하고 따라 나섰

다. 처음엔 지하철을 이용하고 오르막

내리막 몇번 바뀌다고 충현교회에 가니 너무 멀고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도 아프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짜증이 났다. 너무 지쳐서 다음 주일날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

면 잘 커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에 참석하던 중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갔다오면 즐겁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

예수님 사랑잔치

이 한 갑

(제8-1교구, 소망부)

각될 만큼 힘

이 들었다. 그러나 조금씩 여러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 내 다리 아픈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것이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손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

나 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하소연을 자주하게 됐다. 그게 바로 기도였다.

교회에서 내가 해당되는 곳이면 모이는 곳마다 다 참석했다. 소망부, 구역 예배, 교구모임 등 참석해보니 모두가 다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참 좋았다. 나는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다. 크게 달라진 내 모습을 말하라면 언제부터인가 웃는 얼굴이다. 희망이 생기고, 아프던 다리도 많이 나아지고, 꿈나무 같은 손자도 교회에 잘 나간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밤새워 화투나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부르는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한줄한줄 읽어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다. 크게 달라진 내 모습을 말하라면 언제부터인가 웃는 얼굴이다. 희망이 생기고, 아프던 다리도 많이 나아지고, 꿈나무 같은 손자도 교회에 잘 나간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밤새워 화투나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부르는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한줄한줄 읽어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어버이날에 시집간 딸이 주고 간 돈으로 쿼른 돋보기 안경을 샀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뿐이다. 지금은 교회 안가면 불안할만큼 주일이 기다려진다. 예수님을 만난 나는 중요롭고 뿌듯하고 항상 기쁘다. 지금은 옆집 앞집 누굴 만나면 예수님 믿자고 전한다. 예수님이 참 좋아 자꾸 전도한다. 이젠 웃음이 가득한 우리집,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우연히(?) 교회 나갔지만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야 철이 드나보다." 생각하니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부터라도 더욱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할게요.



'95 예수사랑 큰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6월 7일(수)~9일(금), 오후 8시
6월 11일(주일) 오전 7, 9, 11시, 오후 1, 3, 5시

위의 시간 중 편리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충현교회로 오시려면

